

※ Facebook でレポートに関する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ます  
ので、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12月号

韓国

# CIR レポート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  
です。

1年間、大変お疲れ様でした。紆余曲折もありました  
が、無事に乗り越え、このレポートで再び会うことにな  
りすごくうれしいです。今回迎える年はいつもより安全  
で安らかな1年にな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

さて、今回は韓国の正月、ソルラルについて説明をし  
たいと思います。

## 1. 韓国のソルラル

ソルラルという単語、聞き覚えはありますか。元日、1月1日のことです。しかし韓  
国は日本とは違い、伝統的な祝日を旧暦で計算します。普通の元日、つまり新暦の1月  
1日の当日だけ休みます。本当の正月である旧暦の1月1日には当日を挟んで前日と次  
の日を合わせて3日間の連休になります。



↑ 祭祀

ソルラルの代表的な特徴3つは祭祀とセベ、そしてトッククです。

まず、祭祀は先祖に見守っ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感謝の気持ちを込めて行うことです。この時作る料理はある程度決められていますが、今はそこまでこだわらず、先祖の方の好物や子供らが好きな料理を準備する家庭もあります。昔ながらの料理が多いため、たまに嫌がる子供がいるからです。禁じられているものは小豆が入った料理ですが、なぜかという、韓国で小豆は幽霊を追い出す時に使う風習があるからです。小豆のせいで先祖の霊が来なくなったらだめですからね。

去年のレポートの中で、最近電子レンジさえあればすぐ食べることができる様々な冷凍食品が販売されていると説明したこと、覚えていますか。祭祀で使う料理、とくに揚げ物などの冷凍食品の売り上げが年々増加しています。もしくは市場やネットで予約し、ソルラルの前日に配達してくれるサービスもあります。



↑歳拜(セベ)

セベは目上の方に挨拶をする文化です。セベをされた目上の方は新年にはいいことがあるように…系の少し長い一言とともにお小遣いを配ります。子供らが一番楽しい時間ですね。



↑トックク

丸い餅はお金を、そして切る前の餅は長い形をしていて長寿を意味します。韓国は数え年であるため1月1日になると年を取るという概念が一般的です。そしてこの日にトッククを食べるのが結び付いて、トッククを食べると1歳年を取ると言われます。ご飯が食べたくないと駄々をこねる子供を叱るとき、食べないと1歳年を取れないよと言います。大概の子供は早く年を取って大人になりたい存在ですからね。逆にある程度の年齢になるとトッククは食べたくないと駄々をこねる大人もいなくはないです。

写真を見ると絶対ソルラルにしか食べなさそうという感じはありますが、すごく簡単に作ることができるためトッククが好きな人はいつでも作って食べますし、最近ではインスタントでも販売されています。

## 2. 一味違うソルラル

今回のタイトルは辛口正月。今まで説明したのは伝統的で一般的なソルラルの姿で、これからはだんだん変わっていくソルラルについて少し説明します。

まずは祭祀ですが、統計庁の2015年資料によるとキリスト教徒の人口は約970万人。韓国の全体人口の約1/5です。キリスト教では祭祀を行いません。死者は天国か地獄に行くだけです。

連休には海外旅行に行く家庭が多くなっている傾向が見られますが、実際先祖のおかげで裕福になった家庭は連休の時海外旅行をするが、そこまで余裕がない家庭は家に残り、海外旅行はおろか国内旅行もいけない環境で、祭祀を行うというみたいに、半分冗談で自虐的な見解もあります。

昔は遠い所に住んでいても、できるだけ多くの親戚が集まっていたことに対し、今は核家族化が進み、みんなで集まることにそこまでこだわらなくなりました。正月の渋滞地獄や連休に予定を入れておいた旅行に行くため、前もって訪問することでソルラルの訪問はしない場合もあります。

久しぶりに会った親戚は学校で勉強はきちんとしているか、付き合っている人はいるか、大学はどこに入ったか、就職はいつ決まるのか、結婚はいつするのか、子供はまだかなどの質問をするのが普通ですが、この質問が最近の若者にはすごく大きいストレスになっていて、親戚の所には行かずに家で一人で過ごす人も少なくありません。

一応、辛口と書きましたがそこまでもなかったような、中辛の気がしますね。ちょいスパイスを足すと、私の実家は諸事情により、うちの家族だけで過ごします。普通たくさん作らなきゃいけない祭祀用の料理ですが、家族が好きな料理だけを適量に作って食べることで満足感があります。食べ残しもありますしね。

昔の韓国のソルラルのステレオタイプと言えば、男性たちはリビングでテレビを見ながら果物を食べていて、女性たちは厨房でひたすら料理の準備をすることでしたが、やっとなんて最近になって少し変わっているそうです。それでもまだまだ先は見えないですけどね。

そしてソルラルの直後、2-3月には離婚率がいつもより11.5%増加します。少しずつ

たまっていた不満が、この日を境に爆発するらしいです。料理の準備が大変だから少し助けてほしい妻と、運転をしたからもう自分の任務は果たしたと思う夫。そして電話だけだったら何とか回避できたけれど、この日だけは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嫁姑問題。自分の家族だからと言って、妻ではなくお母さんの味方になる夫。等々…結婚している皆さん、今年も本当に大変お疲れ様でした。

様々な理由で、最近では、ソルラルは昔の悪習で、なくなるべきだと主張する人も多くなってきました。それはまたちょっと違うのでは？と思いますけどね。

・祭祀、中央日報

<https://news.joins.com/article/22370562>

・歳拜(セベ)、駐イタリア在外韓国文化院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2403>

・떡국(トックク)、東亜サイエンス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156>

※ Facebook 에서 레포트와 관련된 양케이트를 실시중입니다.

협력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ja-jp.facebook.com/cir.yamaguchi/>



1 2 월호

한국

# CIR 레포트



## 「매운맛 설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만, 다들 극복하시고 이 레포트에서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가올 한 해는 부디 안전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명절 설날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한국의 설날

설날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 월 1 일을 뜻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통 명절은 항상 음력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릅니다. 일반 1 월 1 일 즉 양력 1 월 1 일에는 당일 하루만 쉽니다. 진짜 설날인 음력 1 월 1 일에는 설날 당일과 앞, 뒷날을 포함하여 3 일을 쉽니다.



↑ 차례상

설날의 대표적인 3 가지는 차례와 세배, 떡국인데요. 차례는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규칙에 많이 얽매이기 보다, 생전에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심지어는 그냥 그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도 올리고는 합니다. 물론 팔이 들어간 음식은 올리지 않는데, 한국에서 팔은 귀신을 내쫓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팔 때문에 조상님 귀신이 오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작년에 올렸던 레포트에서, 전자렌지만 돌리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생겼다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차례상에 올리는 튀김이나 여러 전 종류도 냉동 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예약 주문을 받고, 설 전에 직접 만든 요리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 세배

세배는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문화인데요. 절을 하면 어른께서 올 한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한 마디를 해주시고, 용돈을 주시고는 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 떡국

떡의 모습이 동그란 것은 돈을 상징하며, 떡은 자르기 전에 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1 월 1 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 시스템인데, 이 날 떡국을 먹다보니 일반적으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고 얘기 하고는 합니다. 밥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거 안 먹으면 나이 못 먹는다고 혼내기도 하죠. 아이들은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하는 존재니까요.

사실 설날에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떡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먹기도 하고, 인스턴트 컵라면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 2. 약간 다른 맛 설날

이번 레포트 제목은 매운맛 설날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전통적인 설날의 모습이고, 지금부터는 요즘 많이 바뀌어 가는 설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례인데요. 통계청의 2015 년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약 970 만명.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가는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반 농담으로 정작 조상에게 덕을 입어 잘 사는 집은 해외로 놀러 다니고, 형편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내에 남아 조상님에게 감사하다며 차례를 지낸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친척들이 모였던 것에 비해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까운 친척끼리만 모이게 되었고, 요즘에는 명절에 생기는 교통 체증이나 명절 연휴에 여행을 가기 위해 평소에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명절 당일 날 방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사귀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대학은 어디에 갔는지, 취직은 언제 할 건지. 사실 친척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다보니 물어볼 질문이 한정되어 있고, 이 질문들이 젊은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혼자만 집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운 맛이라고 쓰긴 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던 거 같네요. 약간 첨언하자면 제 본가는 사정에 의해 우리 가족 끼리만 보냅니다. 보통 잔뜩 만들어야 하는 제사용 음식인데,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 적당히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 만족감이 있습니다. 잔반도 안 생기구요.

예전의 한국 설날의 스테레오 타입은, 남자들은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여자들은 주방에서 계속 요리만 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갈길은 멀지만요.

그리고 설날이 끝나고 나서 2~3 월에는 이혼율이 평소보다 11.5% 증가합니다. 조금씩 쌓여있던 불만이 이 날을 기점으로 폭발한다고 해요. 요리 준비가 힘드니 조금 도와주길 바라는 아내와, 운전을 했으니 자기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전화로는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지만, 이 날은 피할 수 없는 고부갈등. 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닌 어머니의 편이 되는 남편. 등등. 결혼하신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설날은 예로부터의 악습이며,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그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네요.

· 차례상,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370562>

· 세배, 주이탈리아 재외한국문화원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2403>

· 떡국, 동아 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6156>